



유럽의 금융위기 조짐과 EU의 조기 대응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또는 실적 악화가 나타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됨.
- 무디스는 10월 5일 이탈리아 1~2위 은행들(유니크레디트, 인테사 산파올로)의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(Aa3→A2)하고, 다수 이탈리아 중소형 은행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함.
 - 무디스는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이 약화되었으며, 유니크레디트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수익성 전망도 악화되어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밝힘.
 - 은행의 등급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추가 강등 가능성도 예고됨.
- 이탈리아 국채를 다수 보유한 프랑스 은행들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짐.
 - 무디스는 9월 14일 재정위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 2~3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디 아그리콜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함.
 - 프랑스 은행들의 경우 그리스(134억 달러), 포르투갈(86억 달러), 아일랜드(28억 달러)에 대한 위험노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, 이탈리아(1,051억 달러), 스페인(326억 달러)을 포함하면 전체 위험도(1,624억 달러)가 급증함.
- 10월 4일 독일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는 그리스 등 주변국 국채 보유로 인한 손실로 인해 100억 유로 규모의 세전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.
 - 2010년 말 현재 도이체방크의 그리스(15억 유로), 이탈리아(53억 유로), 스페인(21억 유로), 포르투갈(1억 유로)에 대한 위험노출 규모는 90억 유로로 핵심자본의 29.7%에 해당됨.
 - 이들의 위험노출액이 상당 부분 대손상각될 경우 BIS가 요구하는 핵심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.
-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채권율은 16연래 최고치로 치솟음.
 - 2011년 7월 말 현재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채권율은 한 달 사이 0.25%p 상승한 6.94%(1,247억 유로)에 달해 16연래 최고치를 기록함.

- 파이낸셜타임즈는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후퇴 여파로 금융거래는 물론 주식 및 채권 발행이 축소되고 M&A 활동이 둔화되는 등 유럽 은행권의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함.
- 특히, 프랑스와 벨기에계 은행인 텍시아는 유동성 부족으로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받은 이후 부도설이 퍼지면서 10월 5일 대량의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함.
 - 10월 4일 마감 이후 약 3억 유로(약 4,700억 원)의 예금이 인출되었으며, 온라인 बैं킹을 통해 인출된 예금을 합하면 전체 인출액은 3억 유로를 상회함.
 - 2010년 말 현재 텍시아의 이탈리아(150억 유로), 그리스(35억 유로), 포르투갈(19억 유로), 스페인(14억 유로)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218억 유로로 핵심자본의 128.5%에 달함.
- 이에 대해 EU는 유로존 재정 위기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국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.
 - EU는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, 재정위기국의 국채 보유로 부도설에 시달리는 은행들을 위한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.
 - 독일 재무장관은 자국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 '금융시장 안정화기금(Soffin)'을 재가동할 수도 있음을 밝힘.
 - 독일은 2008년 금융시장 안정화기금(Soffin)을 마련하여 히포리얼에스테이트(HRE), 코메르츠 뱅크 등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음.
 - 그러나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기금을 향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었음.

(Financial Times 10/5, Wall Street Journal 10/6)